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예산삭감 항의

### 매장건물 2층 카페설립 6000만원 삭감... 주유선 시의원, "추후 다시 한번 추경심사 할 의사 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송원대)은 본 예산에서 6,000만원 삭감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가 익산시청 앞에서 표출됐다.

이날 논성은 2018년 본예산 신청시 1억6,000만원 예산중 1억원은 예산확정되었으나 실제 매장건물 2층 카페설립 6천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표출과 면담을 하고자 지난 21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장 및 시의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다.

송 이사장은 "시의회에 예산삭감 이유를 아직까지도 면담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단지 표결을 통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통과 시키고 조합원이 원하는 부분은 삭감처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로컬푸드매장 2층에 카페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거 조합원이 3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500여명가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 1층매장은 매우 비좁아서 2층에 사무실 이외 70여평 여유 공간을 카페설립을 통한 과일주스나 기타 차등을 포인트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선 시의원은 "예결위 심의시 2층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보고서 로컬푸드 마트 소형각이 소형보고서 그 바깥 사이에 차곡차곡 갈분들이 얼마나 있게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필이 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 같다고 했으며 "추후 시에서 정확한 카페 센터 설립에 관한 추경예산이 신청될 시 다시 한번 추경심사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관계자는 로컬푸드 2층 매장내에 센터 및 반찬매장에 대한 예결위에 브리핑을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삭감에 대한 아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에 차후 추경예산 상정에서 정확한 사업설명이 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송원대)은 본 예산에서 6,000만원 삭감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가 익산시청앞에서 표출됐다.

반영되어 추경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했다.

송원대 이사장은 "충분히 농민들의 입장을 이야기 했고 조합원들에게 전혀 로컬푸드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삭

감한 의원에 관해서 재차 재고해서 추경심사가 되어주길 바라며 그후에도 예산 반영이 안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양원기자

## 군산시민축구단 U-15 28일 창단

군산시가 지원하는 군산시민축구단 U-15의 창단 작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자칫 맥이 끊길 우려가 높았던 내년도 금석배 전국축구대회 홈팀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산시민축구단은 지난 6일 K3감독이었던 군산출신 서원상 감독을 선임한 데 이어 19일 군산제일고와 성균관대를 거쳐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등에서 공격수로 활동해 왔던 하은철을 코치로 영입하는 등 막강한 지도진을 구축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시민축구단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군산 수송공원 축구장에서 1차 선수 선발전과 함께 군산시축구협회와 이 지역 축구클럽들의 도움으로 선수 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선수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민축구단은 초등 6학년과 중학 1~2년생이 나온 1차 선발전에서 10여명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된 학부모들과의 잇따라 연찬회를 갖는 등 창단 작업을 계속해 왔다.

선수 선발을 위해 최낙삼 체육진흥과장과 직원들은 물론 군산 제일고의 유동준 감독과 우석대 유동우 감독 등이 자리를 지켰고 군산시민축구단에서는 김민재 구단주(군산경제시장 대표)를 비롯한 이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창단 작업을 후원했다. 특히 박용희 군산시축구협회장이 이 지역 유소년클럽 지도자들과 연선회의를 가지면서 시민축구단을 지원하도록 한 게 창단작업의 숨은 공로로 꼽히고 있다.

서원상 감독은 "구단과 지도자, 선수와 학부모, 군산시와 지역사회가 공원 축구장에서 1차 선수 선발전과 함께 군산시축구협회와 이 지역 축구클럽들의 도움으로 선수 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선수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민축구단은 초등 6학년과 중학 1~2년생이 나온 1차 선발전에서 10여명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된 학부모들과의 잇따라 연찬회를 갖는 등 창단 작업을 계속해 왔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드론 이용한 AI 차단방역 '총력'

군산시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역소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일 드론을 동원하여 관내 대규모 가금사육농가 및 주변 소류지에 대한 대대적인 항공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거점시설 설치, 군제독차, 방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활용한 소독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필수 방역 장소인 축사 지붕과 철새도래지인 저수지와 습지 등은 방역차량과 인력 접근이 쉽지 않아 애를 태워왔다.

이날 드론을 이용한 AI 방역은 축사 지붕이나 산야 등 방역차량 접근이 어렵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공중에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실시

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성 높은 방역 작업을 유감없이 선보이는 등 방역소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한 채금석 농정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방역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강 철새 도래지 등 철새 출현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동원해 일반 방역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방역 환경을 넓혀 소독하면서 군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AI차단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으로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 일일점검과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모든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및 일제방역, 축사 지도 점검 등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청 김미정 계장,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



군산시 농촌지원과 김미정 지도운영계장(52, 여)이 지난 21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17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촌지도사업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주어지는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에 선정됐다.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지도직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언론인

농업 전문가, 농업인 단체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발표심사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김 계장은 농업인화습단체 조직육성과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 등 농업인들의 역량강화와 지역특화작물 발굴, 농산물가공업체 육성,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의 식품공장 개소 등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사이트 용역보고회

군산시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용역은 다양한 계층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각자의

화면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방식을 구현했으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유로 소통강화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사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과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 설계·시공·연구 분야 산학공동협력 모색

### 원광대-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회장 박태휘)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원광대 회의실에서 김도중 총장과 박태휘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관문화공원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설계·시공·연구 분야의 산학공동협력력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도시공학부와 함께 산업체 수요 맞춤형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교류 및 인적교류, 해외경관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평을 통해 김도중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공 분야에서 기술·기능·관리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은퇴한 뒤로 그 공백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어 우리나라가 뿌리산업부터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상황에 국가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대학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협약으로 원광대와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가 힘을 합쳐 산업체 수요에 맞는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 공백을 메워 준다면, 국가적으로나 대학교육에 있어 매우 뜻깊고 중요한 산학협력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협약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박태휘 회장은 "사학계는 원광대와 협약을 통해 건설산업현장 인재를 함께 육성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협회도 모든 자원을 집중해 원광대의 새로운 시도에 부응하고, 회원사들과 연계하여 졸업생들을 미래 건설 산업의 핵심인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서 협회 회원사들의 기대감을 전했다.

협약식에 이어진 환담에서는 양 기관이 문화재보수 분야 기능교류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기능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새롭게 도출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향후 산학협력단과 도시공학부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익산=김양원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